

# 한국학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베르너 자쎄(Werner Sasse)

前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한국학 교수, 한국학 전공  
werner\_sasse@hotmail.com

## I. 머리말

II.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학문적 조사의 중요성

III. 원본이 분실된 경우

IV.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근본 방법 개략

V.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또 다른 중요성: 한국학 對 중국학과 일본학

VI. 고전문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삼아탑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VII.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과 국가 브랜딩

VIII. 맷음말

## I. 머리말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이 학문적 조사의 토대인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 학계의 교수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려하지 않고 논문을 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본문교정학은 한국 전통 학문에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요즘에는 유행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하는 번역 사업 중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널리 알려진 가사인 〈농가월령가〉의 경우 내용에 대한 석·박사 논문과 주를 단 해석본도 많다. 다만 번역 사업을 시작할 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어느 본이 원본인지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본(異本)이 몇 개인지 조사한 내용도 한국에 없다는 것이었다.<sup>1)</sup>

또 다른 예를 들면, 최남선 선생이 19세기 중엽에 홍석모(洪錫謨, ?-?)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필사본을 1913년에 현대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에 『동국세시기』를 해석한 책 몇 권도 간행되었다.<sup>2)</sup> 그리고 세시풍속에 대한 논문에서도 늘 언급되어왔다. 이 책이나 논문들의 연구는 예외 없이 현대 활자본 텍스트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다만, 최근 정승모 선생 필사본을 직접 보고 최남선본의 오자와 탈자를 발견하고 원본 텍스트를 조사한 바 있다.<sup>3)</sup>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유는 “출판하라, 아니면 사라질 것이다(Publish or Perish)”라는 현대 학계의 지적 풍토에 따라 기본적인 조사를 자세히 할 수 있는 필연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전용 시대인 오늘날 학생들은 물론 교수까지도 한문 원본조사에 대한 관심이 차차 없어지게 된 것도 한몫을 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1) 本文批評은 독일말로 있습니다. Haftmann, Anja Katharina, *Die handschriftlichen Textzeugen des Langgedichts Nonggawöllyüng-ka*, Wiesbaden: Harrassowitz(1999), ix, p. 303.

2) 崔大林, 『東國歲時記』(홍신문화사, 1989, 2008); 李錫浩, 韓國名著大全集 『東國歲時記/渢陽歲時記/京都雜志/東京雜記』(大洋書籍, 1975); 李錫浩, 『東國歲時記(外)』(乙酉文庫 25)(乙酉文化社, 1969, 1977).

3) 정승모,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 『역사민속학』 13(2001. 12), 50-69쪽;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세시기 3-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2007);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이함, 『동국세시기』(2009).

무관심은 학문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통과의 연결까지 끊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 II.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학문적 조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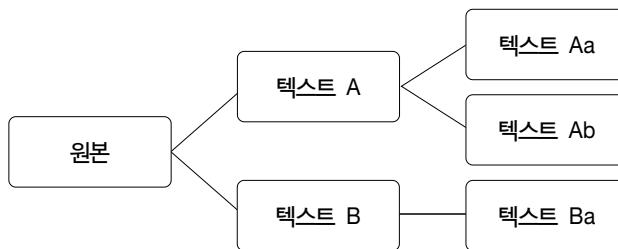
고전작품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고전의 이본이 많아진다. 필경생(筆耕生)들이 아무리 신중히 고려한다 해도 오자<sup>4)</sup>나 탈자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필경자가 이 오자나 탈자가 있는 이본을 보고 또다시 사본을 만들 때 원래 있는 오자나 탈자 이상의 또 다른 오자나 탈자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이본의 텍스트 비교로 이본의 계도(系圖)를 확증할 수 있다. 가령 텍스트(이본) 3개인 경우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이러한 조사로 고전 텍스트의 정본을 발견하는 것과 역사비평본을 간행하는 것이 학문적 조사의 토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학이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경자가 자기 스승이 읽는 이본을 빼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텍스트는 이본 비교를 통하여 어느 학파나 당파에서 작성되었는가도 추측할 수 있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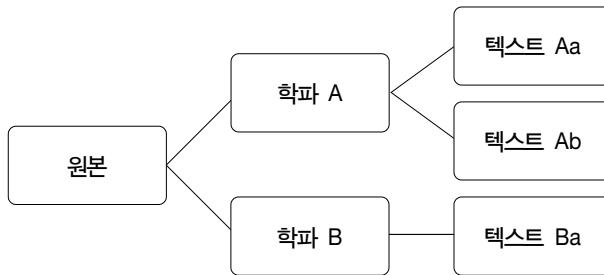
이것이 많은 이본 중에 필경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다.

표1-이본의 계도



4) 혹은 古字, 俗字, 省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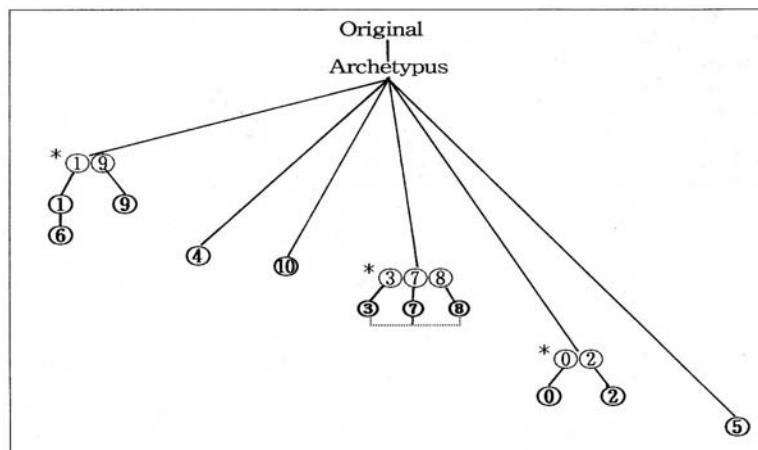
표2-이본의 계도 및 학파 조사



### III. 원본이 분실된 경우

만약 원본이 분실되거나 재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본 가운데 어느 이본이 분실된 원본에 제일 가까운 텍스트인가를 정할 수 있다. 가령 〈농가월령가〉 11개 이본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는 표3과 같다.

표3-〈농가월령가〉 11개 이본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



5) Haftmann, *op. cit.*, p. 79.

## VI.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근본 방법 개략

여러 텍스트를 비교하면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오류, 즉 분리오류와 연결오류가 발견된다. 분리오류는 이본에서 오자가 나올 때마다 다른 텍스트별로 분류해야 한다.

연결오류는 A, B, E, G 텍스트에 같은 오자가 있고, 텍스트 C, D, F에는 그 오자가 없으면, 텍스트 A, B, E, G는 한 계통이고 텍스트 C, D, F는 다른 계통이다. 이 두 종류의 오자를 기점으로 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부터 유럽에 2,000년 걸쳐 정교한 방법이 발달해왔고 특히 19세기에 현대화되었다.<sup>6)</sup> 다만, 필경자가 한 이본이 아닌 몇 개의 텍스트를 합성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텍스트 전부를 비교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 V.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의 또 다른 중요성:

### 한국학 對 중국학과 일본학

한국문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과 더불어 한자문화권에 속한 특색 있는 문화이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특색은 찾기가 어렵고 외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중국학(sinology)과 일본학(japanology)을 다룬 지는 300년 이상이 된 반면 한국학을 다루게 된 지는 10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 대학교에는 중국학과와 일본학과가 많고, 최근에 한국학과가 여러 대학교에 설립되었지만 아직은 많지 않고 학생 수도 비교적 적다. 그리고 중국학과와 일본학과에서는 전통문화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국학과에서는 주로 현대의 사회학·경제학·정치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를

---

6) Friedrich August Wolf(1759~1824), F. D. E. Schleiermacher(1768~1834), Karl Lachmann(1793~1851).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학생이나 교수가 전통 텍스트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여러 이본 중에 어느 본이 원본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깊이 연구하고 싶은 학자들이 이 낙심하여 한국문화보다는 이러한 기초 연구가 성립되어 있는 중국 문화와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로 발길을 돌린다.

한국학이 중국문화 연구나 일본문화 연구와 같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 VI. 고전문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상아탑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은 국내의 학문수준 높이기와 국외의 한국학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19세기 말의 위기시대, 일제강점기시대, 한국전쟁, 한강의 기적에 따른 도시화 등등의 현상에 한국인 대부분은 100년 넘게 문화적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은 주말이나 노동시간 이후에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충분히 부유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노래방을 가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오락으로 여가시간을 보내지만, 한편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며 전통문화를 찾는 데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전통예술이나 공예를 취미로 배운다.

실은 이것이 전통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민속춤, 북치기, 가야금 혹은 다른 전통악기를 다루거나, 다도(茶道)를 행하거나 전통요리 강습과 정을 이수하는 등과 같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은 적극적으로 전통을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여전히 한옥지구 전체를 부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한옥을 짓거나, 황토벽과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를 보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이나 ‘슬로 시티’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다시 전통적인 것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전통문화에 관하여 다시 새로워진 이런 관심은 종종 너무 과장적이어서 전통문화의 표면만을 건드릴 뿐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화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을 학문적으로만 진행하면 여러 해설에 따라 의견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도 사람의 자아(identity)의식이 알맞게 전통에 근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다.

## VII.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과 국가 브랜딩

한국이 1,500년 이상된 문자문화라는 것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 브랜딩(nation branding)이 주로 현대문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술이 잘 발달하고 수출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경제력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으며,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K-pop 음악과 TV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는 한국문화가 바탕이 된 현상이 아니라 국제 마케팅의 형식일 뿐이다.

한국을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고전문화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역사학과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고전문학을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이기 때문이다.

## VIII. 맺음말

한국 대학 교수 활동의 문제 중의 하나는 짧은 시간에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 결과도 성취하고 연구자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 문 요 약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이 학문적 조사의 토대이지만, 여러 이본 중에 어느 본이 원본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역사비평본 간행이 한국학계에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고전 텍스트 정본 사업은 한국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중국학(sinology)과 일본학(japanology)과 같은 높은 학문적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정확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 국가 브랜딩(nation branding)에 중요한 사업이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고전 텍스트 정본(Korean classical literature), 역사비평본(historical-critical editions), 한국학(Korean Studies), 역사의식(historical consciousness), 국가 브랜딩(nation branding), 대조조사(Collation)